

산림 6차산업의 해법 산촌의 미래, 6차산업이 답이다



소현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홍보기획본부장

이 코너를 신설하며

제정 1년을 맞는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6차산업이 지난 6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6차산업법은 낱알이 힘들어 하는 농촌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이번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농촌 정책으로 우리 산림에도 적극 도입을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협회지에 이 코너를 전격 신설해 보았습니다.

산림의 6차산업을 우리 임업인들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림의 보전”과 “임업인의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6차산업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년 가을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협회지 편집을 맡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이 협회지의 독자는 거의 대다수가 우리 협회 회원님들일 것이므로 산림경영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실어야 할 것 같아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산림정책을 수집하다 보니 앞으로 농산촌의 미래가 달려있는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용을 살펴보니 이 법률은 농촌정책으로 만들어졌지만 소득을 쉽게 낼 수 없는 우리 산림분야에서 더 유용하게 쓰일 정책이란 느낌이 확 와 닿아서 금년 신년호에 이에 관한 법률을 법제처에서 찾아 신고 이에 관한 전문가를 수소문하여 기고를 받아 실었습니다.

신년호 많은 지면이 6차산업에 할애된 것을 보고 아직 6차 산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을 하였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반기웠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아도 그 법을 정작 시행하여야 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해주지 못하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법이 농산촌에 잘 정착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6차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 20일에도 산림청 주관으로 정은조회장님의 윤제림에서 “산림분야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세히 취재기를 지난 가을호에 기고했으므로 6차산업의 개념은 다 잘고 계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시작된 6차 업법은 농림부 쪽에서는 6차산업 사업자 인증 등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되었고, 최근 나오는 산림정책 이슈에서도 ‘최근 지역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6차산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원정책 또한 6차 산업의 틀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임 (국립산림과학원-산촌진흥을 위한 산림청 및 지자체의 정립방안)을 볼 때 우리 협회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 회원 자격 특성상 우리 회원님들은 6차산업 기반들을 다 갖고 계시고 현재 일상적으로 해 오시는 일들이 다 6차 산업 범주에 들어가므로 그 많은 구슬들을 잘 꿰기만 하면 바로 멋진 6차산업 성공모델들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요즘 저에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저도 어찌다가 산촌 오지 사람이 되어 기왕 피하지 못 할 거면 즐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산촌에서 재미있는 일을 만들려고 연구하다 보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올라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몇 개만 개발하여 하루 빨리 성공모델을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무슨 복을 타고 난 건지 아님 시대를 잘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산촌에 사는 저를 측은하게 생각하기는커녕 다 부러워하는 걸 보면서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미래 학자들도 미래의 희망은 농산촌에 있다고 젊은이들도 농산촌에서의 창업이 제일 비전 있는 일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좋은 기회도 많이 찾아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각자 상황과 규모에 맞게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6차산업에 대한 교육을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6차산업을 자칫 농산촌의 일로만 알고 있지만 이 산업은 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농산촌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된 분야도 아주 포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즘 시대적 트렌드이기도 하고 현정부 국정 운영방침이기도 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개방하고 공유하여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자신의 귀를 확 열어야 합니다.

이런 대세의 흐름을 모르면 자신만 도태 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철학이 있어 바라는 힘들겠지만 나 자신을 위하고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코너를 관심가져 주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협회 사무실로 자료를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너는 이렇게 활용할까 합니다

먼저 6차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산림 기관의 방침과 우리 협회와의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6차산업과 관련된 각 분야 외부 특별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협회지에 우리 산림경영에 실제 도움이 될수있도록 6차산업의 성공요인을 연재 하도록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원님들이 해 오신일이 6차산업이란 이름만 붙이면 다 6차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 모두가 6차산업의 전문가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하시고 있는 일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하시는 일을 잘 홍보하여 판로를 열어 드릴 수 있도록 홍보기획본부에 SNS 전문 인력을 대폭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6차산업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현재 가지고있는 것을 잘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라는 것이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협회 회원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꼭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 진 것이므로 우리 협회에서 발빠르게 대응해 선도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즉, 인프라는 다 갖춰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꺾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인 프로그램 개발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산림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호에는 앞으로 산림분야 6차산업을 당당하게 될 한국임업진흥원 담당자의 원고를 받아 실었고, 앞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국립산림과학원과 우리 협회와 6차산업에 관한 많은 협업의 방안을 제시하는 원고도 실었습니다.

또한 요즘 “한국형 6차산업화”라는 책을 내서 6차산업 관련 기관과 농촌에서 이미 6차산업으로 성공한 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박성수 교수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정은조 회장님께서도 이 책을 읽어보시고 젊은 교수가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진정성과 실력도 있다고 아래와 같은 멋진 추천사도 써 주셔서 이 책의 가치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박성수 교수의 「한국형 6차산업화는 현장에서 막 건져낸 따끈한 살아있는 비타민 덩어리를 제공받아 허기진 농산어촌이 산채비빔밥 한 그릇을 희망과 기회에 버무려서 똑딱 해치운 기분이다”

앞으로도 외부 이런 전문가들을 계속 발굴해서 회원님들의 산림경영을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고 우리 협회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호도 기대해 주세요~^^ 🌱



좌. 박성수 교수 책 | 우. 산림경영 2014겨울호